

철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찾자

김영규(철원역사문화연구소)

I. 서론

철원군은 1924년 전국각지에서 소작농 목적의 집단이주를 통해 형성된 번성했던 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주민의 80%가 북으로 피난하고 중심시가지가 사라져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휴전 이후 1968년 남북관계가 완화되면서 민북지대에 18여 개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전쟁이 일어날 시 은폐 및 방어가 용이한 동송읍·갈말읍·철원읍에 정착촌이 조성되었으며, 900개 가량의 세대는 원주민 50%, 제대장병 50%로 구성되었다. 철원은 선사시대 유적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한국전쟁까지의 문화유적이 풍부하고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휴전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발전에서 소외되었다. 또한 정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 발전의 소외에 더불어 보안문제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철원은 풍요로운 자연, 유구한 역사,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소유했으며, 단절된 역사를 연결하는 중심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철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 자연자원 등을 소개하며 철원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최근 100년 철원군 상황

32

철원군은 남북분단 전 번성했던 도시였다. 1914년 경원선(철원역)이 부설되고, 1923년 철원평야가 개척되면서 1924년 전국적으로 소작농 약 1,500호가 철원에 집단이주를 하였다. 이후 인구가 급격히 상승하여 1935년에는 철원군의 인구가 무려 91,427명에 이르렀었다. 이는 현 인구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고, 강원도 강릉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도시에 속했다. 또한 강원도 내에 처음으로 3·1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으며, 강원도청 이전을 추진하였던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정치이념이 대립하면서 남·북이 분단되고 철원군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때문에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철원주민들이 인민군에 입대를 하였으며, 인민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동굴에 숨어들어가 UN군을 기다렸다고도 전해진다. 전쟁이 시작된 후 2년간 치열한 전쟁터를 겪으며 주민들의 80%가 북으로 피난가면서 도시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1953년 신철



그림 1. 1920년대 집단이주한 주민들 모습



그림 2. 일제강점기 철원을 시가지 모습



그림 3. 철원역(좌), 금강산전기철도 정연철교(우)



원리, 이평리, 와수리 등 휴전 수복지구로 지정되고 구호 주택이 건설되었지만, 이미 철원시가지는 DMZ구역으로 지정되고 민통선이 그어져 예전의 철원의 모습을 되찾기는 어려웠다. 수복 후 철원을 화지리, 동송읍 이평리에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중심지가 형성되고, 서면 와수리와 갈말읍 신철원리에 약 12,000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들은 남쪽 언덕부근에 위치하여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시 은폐, 방어가 용이한 곳에 미군이 지정하여 형성한 마을이었다.

1958년 민통선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고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민통선¹⁾이 완화되었다. 민통선을 출입하던 출입영농의 유형이 가유숙영농을 거쳐 입주영농으로 변화하였음이 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민통선북방의 미개척토지를 개간하고, 식량을 증산함과 동시에 국토 이용의 제고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1959년부터 99개의 자립안정촌을 건설하였으며²⁾, 1968~1973년에는 12개의 재건촌을 건설하였다. 그리

1)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의 휴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歸農)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민간인통제구역 [民間人統制區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고 1973년에는 2개의 통일촌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45%의 철원 원주민과 55%의 외지에서 유입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민통선 북방 지역에 대한 원주민 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수복지구 행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되면서, 이들 민통선 북방 마을들이 원주민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외래민에 의하여 건립되었기 때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략촌의 첫 번째 유형인 자립안정촌은 수복 초기 민북마을을 개발했을 때의 전형적인 형태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자기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복원해야 했으며, 군사적 통제가 비교적 약했다. 두 번째 유형인 재건촌은 1968~1973년에 전선방어의 기여와 휴경지의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발된 마을이다. 대단위 협업영농이 이루어졌으며, 집단정착을 통해 농경지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촌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재건촌의 문제점을 보완한 유형이다. 최전방에 위치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입주자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군복무자로 제한을 두고, 전폭적인 지원홍보 때문에 입주 경쟁률이 엄청났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지뢰를 밟으며 피땀 흘려 일구는 노력에 대한 지원과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철원지역은 6·25 당시 중부전선의 심장부로서 그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큰 평강·철원·김화를 잇는 삼각축선을 지칭하는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였다. 전쟁 내내 3년간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 지속을 지속할 정도로, 철의 삼각지는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고 적이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에는 수도고지 전투, 지형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철원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봉우리인 백마고지에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 싸움은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세워진 ‘백마고지전투전적비’에 적힌 대로 포탄 가루와 주검이 쌓여서 무릎 높이까지 채울 만큼 치열하였다. 해발 395미터인 이 산봉우리는 열흘 동안 주인이 스물네 차례나 바뀌면서 1만 4000명에 가까운 군인이 죽거나 다쳤고, 쏟아진 포탄만 해도 30만 발이 넘었다고 한다.³⁾

III. 철원군 향토사의 특수성

“철원군은 38선과 휴전선에 갇힌 섬이다.”라는 말은 현재 철원의 지리적·역사적 숙명을 대변한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이지만, 분단시대와 통일시대를 겪음으로써 개발로부터 소외된 특수성을 지



그림 4. 입주 당시 경운기 수령(좌), 통일촌 입주식(우)

3) 출처: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8: 강원도, 2012. 10. 5., 다음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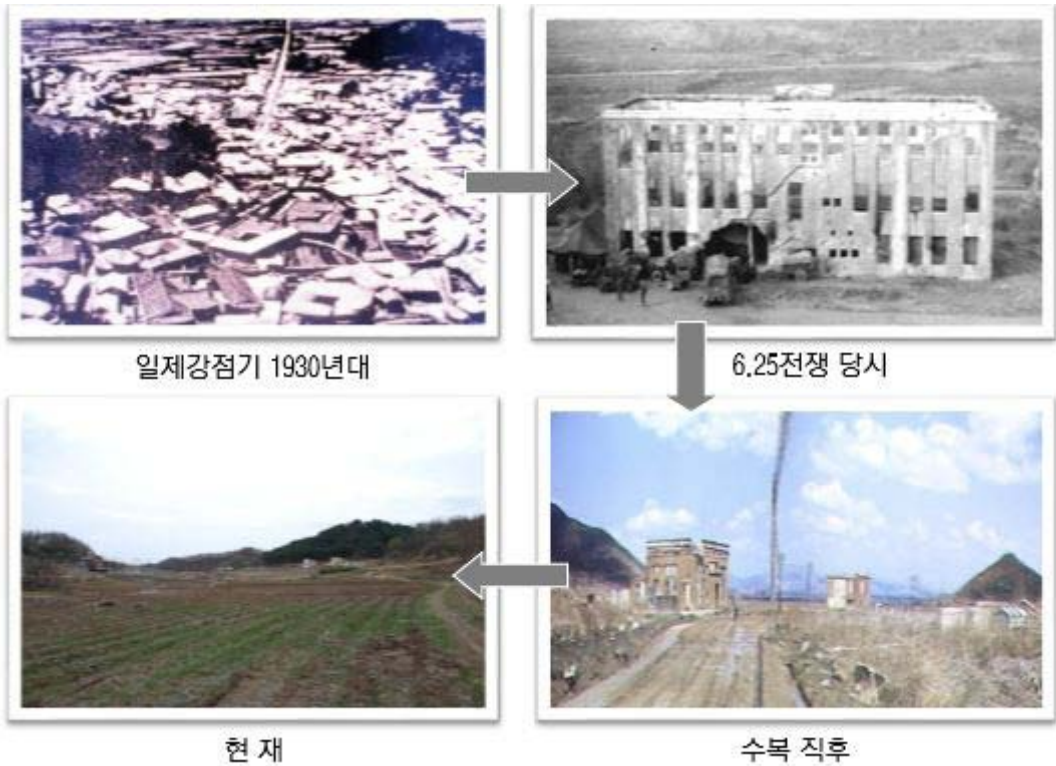


그림 5. 전쟁 전후 철원군의 변천

니는 지역이다. 또한 수복지구로 뺏기고 되찾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 번성했던 도시임과 동시에 태봉국 도읍지가 위치하여 선사유적시대부터 후삼국시대, 일제강점기까지 다양한 유적들이 철원 곳곳에 분포해있다.

1. 철원군 연혁 및 개황

철원은 강원도 영서 최북단에 위치한 평야지대이다. 약 49,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4읍 3면 110개 리로 구성되어있다. 면적은 898.52km²으로 강원도의 5% 정도의 규모이다. 27만년 전 평강 오리산(453m)의 화산이 폭발하여 형성된 용암대지의 철원평야가 위치하고 있

으며, 한탄강과 기암절벽 등의 자연 자원을 지니고 있다.

2. 철원의 지리적, 역사적 환경

철원은 화산이 폭발하며 용암으로 형성된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소유하고 교통중심지였던 도시였다. 또한 일교차가 커서 쌀 농사를 다른 지역보다 이르게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었고 쌀의 품질 또한 좋았다. 1937년 구 철원읍의 인구는 약 19,693명에 육박하였고 이는 춘천, 원주, 강릉과 비슷한 규모였다. 그렇기에 철원에는 고인돌, 태봉국 터, 일제강점기 시 번성했던 상징적인 유적들⁴⁾ 등 선사시대에서 후삼국시대, 일제강점기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4) 노동당사, 철원감리교회, 철원경찰서, 농산물검사소, 철원공립보통학교, 철원제사공장, 강원도립 철원병원, 철원역, 수도국지 등 일제시대 건물 유적들이 남아있다.



그림 6. 전방지역 25,000ha의 재송평(좌), 후방지역 10,000ah 대야잔평(우)



그림 7. 한탄강 고석정(좌), 철원 북방 DMZ 태봉국도성터(우)

한탄강은 철원 북방에서의 화산의 폭발로 형성된 현 무암 협곡 유로이다. 기암절벽과 주상절리, 고석정이 위치하여 래프팅 명소와 트레킹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태봉국은 철원 북방 DMZ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전망대에서 조망할 수 있다. 철원은 905년 태봉국 도읍지였으며 3중성, 외성이 약 12.5km가 낮은 토성으로 펼쳐져 있어 위민사상이 엿보인다.

노동당사는 8·15 해방 후 북한이 공산정권 강화와 주민통제 목적으로 건립했던 노동당의 당사이다. 공산치하에 있었던 5년간 이 곳에서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이동 일대를 관장했다고 한다. 수복지구의 상징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승일교는 한탄강 중류지점에 위치한 높이 35m, 길이 120m, 폭 6m의 다리로 1948년 공산정부가 공사를 시작하여 6·25전쟁 때 미군 공병대가 완공한 다리로서, 이승만(承)자, 김일성 일(日)자를 따서 승일교(承日橋)라고 호칭하였다. 1948년 북한 땅이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고, 그 후 휴전이 성립되어 한국 땅이 되자, 1958년 12월 한국 정부에서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초 공사와 교각 공사는 북한이, 상판 공사 및 마무리 공사는 한국이 한 남북합작의 다리인 셈이다. 3개의 교각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다리로, 처음 북한 쪽에서 지을 때에는 구소련의 유럽 공법이 도입되었으나, 뒤에 한국 측에서 지을 때에는 그와는 다른 공법으로 완성되었다. 처음의 북한 설계자는 진남포 제련소의 굴뚝을 설계한 김명여라고 한다. 콘크리트 다



그림 8. 노동당사 전경(첫째줄 좌), 승일교 전경(첫째줄 우), 1952년 당시 승일교 공사(아랫줄)

리로서 시공자와 완성자가 다른 까닭에 양쪽의 아치 모양 또한 약간 다른데, 북한 쪽에서 먼저 지은 다리는 둥글고, 한국측에서 지은 것은 둥근 네모 형태를 띠고 있다.⁵⁾

IV. 철원군의 평화정착 노력

휴전 이후 국제법상 국가가 병력 주둔과 군사시설 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휴전선을 기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약 6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DMZ 구역은 과거 전쟁과 분단의 아픈 상처를 딛고 평화·생명·생태 지역으로 거듭났다. 정

부는 2005년 DMZ생태계보전대책, 2008년에 DMZ생태평화비전을 선포하고, 2014년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원선 및 금강선 전철을 복원하여 운행하고, 태봉국 도성 남북한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경선평화학교, UN평화대학을 유치하여 미래를 위한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

V. 통일시대 철원군 미래상

언젠가 한반도에는 통일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필자는 그 역사의 중심부에 철원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

5) 출처: 두산백과 ‘철원 승일교’

고 생각하는 바이다. 철원의 풍요로운 자연자원인 한탄강과 철원평야, 유구한 역사와 긍지를 지닌 태봉국 도읍지, 넓은 DMZ에 존재하는 두루미와 생태계의 보고, 그리고 경원선과 금강산선은 철원의 제3의 번영기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다. 철원의 단절된 역사가 연

결된 역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역사적 운명을 깨쳐 100년 전 성황으로 되돌리고 1,000년 전 웅지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다시 남북을 다니며 100년의 단절된 역사가 연결된 역사로 변화하는 것에 철원이 앞장서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두산백과 ‘철원 승일교’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8: 강원도, 2012. 10. 5., 다음생각

민간인통제구역 [民間人統制區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